

외도에 관한 가족치료사례연구

박태영(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조성희(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박사과정)

I. 서론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했을 때, 배우자는 자신의 남편 또는 부인의 바람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며, 이러한 일방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Gottman과 Silver (1999)는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부부관계를 부정하는 4가지 단계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결혼생활을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가 무의하다고 느끼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평행적인 관계의 삶을 시작한다. 네 번째 단계는 외로움에 시달린다. 부부가 이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되면,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불륜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불륜은 결혼생활이 죽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지 그 원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결혼의 종말은 부부 중 한쪽이 방황하기 시작하기 훨씬 전에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임주현 역, 2002, p. 64). Subotnick과 Harris(1999)에 의하면, 외도는 일상생활의 모든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상적인 피난처로 여겨지며, 결혼생활에서 얻기 힘든 특별한 기쁨과 흥분이 있고 또한 가정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관계라고 하였다. 최근에 여자들의 외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랑의 전화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남편의 외도뿐 아니라 아내의 외도로 고통 받는 남편들의 전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기독신문, 2001).

본 연구는 50대 초반의 부인이 외도를 한 사례(A사례)와 30대 중반의 남편이 외도를 한 사례(B사례)를 다룬 연구이다. A사례에서 남편은 부인의 바람기를 B사례에서는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외도의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의 외도의 원인이 단지 배우자의 바람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외도도 대부분의 다른 문제들처럼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외도를 야기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외도에 관련하여 많은 부수적인 요인이나,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신혼 초부터 남편이 시댁 식구와 분리되지 못하고, 신혼초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중심보다는 부모중심의 삶을 살아 갈 때,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부부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성적으로 더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한 사람의 배우자의 주장이 강해서 상대 배우자는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여 두 사람의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의 벽이 쌓아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배우자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남편(부인)에게 풀지 못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하여 부

부관계는 더욱 힘들어진다. 따라서 외도를 단지 단순한 사건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사례를 통하여 외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상담으로 인한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제점 및 치료목표

A사례의 문제점은 부인이 외도를 하기 전부터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경제적인 부분을 남편이 관리하였다. 또한 남편은 원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고, 원가족에 대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부인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부인은 시댁문제로 인하여 남편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신혼 초부터 억압된 생활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부부생활 중심보다는 시댁식구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남편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남편의 시댁식구 중심의 생활과 더불어 남편은 부인에게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남편은 신혼 초부터 주로 지방, 해외에서 근무를 하였고, 결혼생활의 반 정도를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다. 남편은 부인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많이 하였고, 부인의 불륜관계가 탄로 난 이후에는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 부인은 이러한 남편의 감시에 대하여 더욱 힘들어하였고, 남편은 부인에 대하여 참다가 폭발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였다.

B사례의 문제점은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분리되지 못하였고, 결혼 6년 때까지 매주 시댁을 방문하였다. 남편은 요조숙녀형의 분노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부인은 남편의 속마음과 속생각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지난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했고, 불륜관계가 발각된 이후에 부인으로부터 이중구속적인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 왔으며, 이러한 부인의 이중구속적인 메시지로 인하여 남편은 부인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왔으며, 부인은 이러한 남편의 방식에 대하여 자신을 무시한다고 불평하였다. 한편, 부인이 어렸을 때, 친정아버지가 외도를 하여 친정어머니와 부부관계가 안 좋았으며, 이러한 친정부모의 부정적인 부부관계로 인하여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못하도록 사사건건 감시와 남편에게 잔소리를 반복하여 해왔다. 남편은 부인의 반복되는 잔소리를 힘들어했다. 남편은 부인이 남편에게 “너는 바람을 피워서 안 된다”라고 세뇌교육을 시킨 것에 대한 반항으로 다른 여자에게 탈출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부인은 맏딸과 맏며느리로서 과도한 역할을 하였다. 장녀가 두 달 전부터 엄마의 눈치를 보고 있다.

1. 문제점

이 두 사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었다.

둘째, 외도를 하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잔소리와 간섭을 하였다.

셋째, 외도를 하지 않는 배우자가 이중구속적인 메시지를 사용한다.

넷째, 남편이 시댁식구와 분리가 안 되었다. B사례의 경우는 부인 또한 친정과 분리가 되지 않았다.

다섯째, 외도를 하지 않는 배우자의 자신의 삶이 없었다.

여섯째, 자녀들이 불안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2. 치료목표

이 두 사례의 치료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전환한다. 즉, 이중구속적인 메시지 사용을 솔직한 메시지의 사용으로 전환하고, 잔소리와 간섭을 줄인다.

둘째, 남편을 시댁식구로부터 분리하도록 하고, 가족중심으로 삶을 살도록 하며 시댁문제에 관해서는 부인의 견해를 존중해 준다. B사례의 경우에, 부인 또한 친정식구 및 시댁으로부터 분리한다.

셋째, 외도를 하지 않은 배우자의 간섭과 잔소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본인의 삶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도록 한다.

넷째, 부부관계의 변화와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변화로 자녀들을 안정화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인다.

III. 연구방법 및 분석

1. 연구대상 및 상담기간

A사례의 경우는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 까지 총 20회 상담을 하였고, B사례의 경우는 2002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14회를 상담하였다. 이 두 사례는 치료자의 연구년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맺고 종결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상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종결하게 되었다.

A사례의 남편은 51세로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부인은 50세로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5세인 딸과 22세인 아들을 두고 있었다. 두 자녀는 모두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B사례의 남편은 35세로서 회사원이었으며, 부인은 31세로서 학생이었고, 11세와 10세인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연구자이기 이전에 치료자로서의 가족치료접근법으로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과 MRI모델의 상호작용주의적 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외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관하여 자아분화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자아분화문제는 다시 시댁과의 문제와 각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문제(자아분화)를 중심으로 하여 개방코딩을 하도록 하겠다. 의사소통문제에서는 다시 역설적인 의사소통방식(이중속박메시지 사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A사례의 경우 의사소통방식 중 언어적·신체적·정서적 폭력을 중심으로 개방코딩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담이 진행되면서 부부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자아분화의 향상과 의사소통의 변화라는 범주로 개방코딩을 하고자 하였다. 자아분화의 향상에서는 부인의 시댁과의 분리, 그리고 남편의 원가족과의 분리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코딩하였다. 의사소통의 변화는 역설적인 의사소통방식의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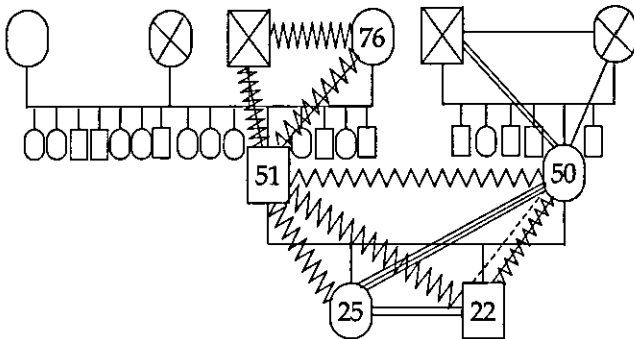
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그리고 폭력사용의 감소를 중심으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중심 외에도 연구자가 축어록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요인들을 찾아 코딩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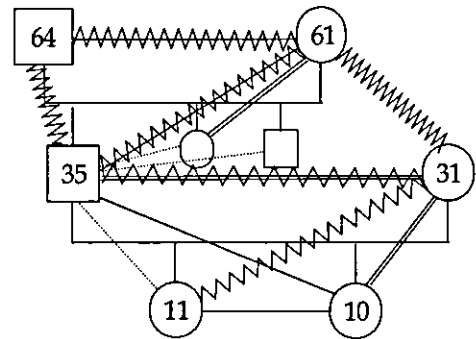
IV. 상담내용 분석

1. 외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외도의 영향

1) 자아분화문제



<그림1. 사례 A 가계도>



<그림2. 사례 B 가계도>

(1) 시댁과의 문제

사례 A	사례 B
<p>며느리의 희생 “나와 집사람이 가족에 희생을 했으며 결과가 비극으로 끝나면 이게 과연 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1회상담)”</p> <p>허무감 “제 자신이 허무해 지고, 제작년 12월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른을 모시면서 아이들은 앞가림 할 줄 알고 제 자신이 허무한 느낌을 가지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된 거 같아요. (부인-1회상담)”</p> <p>시댁식구들이 며느리를 인정해 주지 않음 “예를 들면 남편이 시누이들하고 어디 갔다 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주로 시누이 시동생 용돈문제 어머니 생활 등을 저는 전혀 모르고</p>	<p>며느리의 인내심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보고 모든 것을 참고 다 수용해라. 받아들이고 다 참으라고 하세요.(부인-1회상담)”</p> <p>만며느리로서의 부담 “그러니까 누가 만며느리 자리로 올라고 했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였거든요. 23-24일 때... 그 말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러면서 만며느리는 마음이 넓어야 한다. 그건 저보고 다 수용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 싫고 부담스러워요.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열 번 못하다가 한번 잘하면 아주 잘 한 것이고, 열 번 잘하다가 한번 못하면 다 못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시댁에서 제가 만며느리라는 위치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떨쳐버리고, 이걸 집어던지고</p>

<p>있는 상태에서 제 남편이 다 했어요. 시댁에서 제 자리는 없었어요. 남편이 이해 안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형제들도 저를 전혀 인정을 안 해 주었어요. (부인-1회상담)</p>	<p>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부인-5회상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큰며느리는 마음이 넓어야 하고, 큰며느리는 다 참아야 하고...(부인-13회상담)"</p>
<p>시아버지에 대한 분노 "제가 분을 못이길 때는 뭐가 올라와요. 시아버지한테도 억압된 말을 들으며 생활을 했고, 시아버지가 제 앞에서 그릇을 깨었어요. 또 시아버지가 당신 아들의 돈으로 왜 가슴기를 샀냐고 했어요. (부인-1회상담)"</p>	<p>시누이와 며느리에 대한 차별 대우 "다른 며느리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예를 들면 먹는 것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딸 주고, 그 다음에는 아들 주고, 그 다음에는 손녀, 손자 주고, 그 다음 사위 주고, 먹다 남은 바나나 '너 먹을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 안 먹습니다.' 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먹어요. (부인-6회상담)"</p>
<p>남편에 대한 심심한 감정 "시아버님이 저에게 '네가 속았긴 뭐가 속았냐'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에게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며느리에게 속았다' 그런 소리를 남편이 있을 경우에 한 적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계실 때는 못하지만 남편이 저와 둘만 있을 때 위로의 말을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말을 전혀 안하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부인-1회상담)"</p>	<p>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런 것을 보면서 가기 싫고, 보기 싫고, 막 욕이 나와요. 그런 것을 꼭꼭 눌러 참았었어요.(부인-6회상담)"</p>
<p>감요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방문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에게 소홀하지 않나 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병원에 두 번이나 갔었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지만 남편이 제 의견을 따라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제가 병원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하더라고요. 시누이도 밖에서 안 들어오고 좀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집에 와서도 서로 안 좋았죠. (부인-13회상담) "그것(시어머니 보러 가는 것)을 집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남편-12회상담)"</p>	<p>잡은 시대 방문 "시댁에 거의 매주 갔어요. 휴가도, 시댁에서 보냈고요.(부인-1회상담) "굉장히 컸고요, 이렇게 일주일만 안 가면 전화로 계속 메시지가 오니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요, 더 심한 것은 시누이네 식구랑 다 오는 거예요. 안 가면.....(부인-14회상담)"</p>

(2) 각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문제(자아분화)

사례 A	사례 B
<p>복잡한 원가족 관계 "궁극적인 문제는 가족관계 문제, 나의 형제들, 부모님 가족문제가 복잡해서 어머니가 3분이고, 형제가 열다섯이예요. 그리고 제가 장남이에요. 다른 형제들 관계가 복잡했었는데 많은 가족을 상대해보다가 7-8년 전부터 우리네 가족만 운영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1회상담)"</p> <p>희생자인 남편</p>	<p>남편의 침묵과 무관심 "집사람 편도 거의 안 들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말하기 곤란한거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할까?(남편-1회상담)" "남편은 저를 이해 자체를 못하겠대요. 시댁가면 굉장히 편안하게 있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요,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도 인식을 못해요. 무관심해요.(부인-13회상담)"</p>

<p>“아버지가 시대에 적응을 못하셔서 제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동생들을 위해 희생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남편-2회상담)”</p> <p>처자식보다 귀한 부모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처자식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태어났다. 남편은 처자식들 보다 부모를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부인-1회상담)” “부인의 이야기는 남편이 자라온 부모와 형제들한테는 잘했는데, 정작 중요한 부인과 친자식들에게는 덜 챙기셨다는 거죠?(치료자-2회 상담).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남편-2회상담)”</p> <p>시댁 어머니의 미분화 “어머니는 아버지와 갈등이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쏟지 못한 애정을 자식들한테 쏟으시고 받으셨어요.(남편-2회상담)”</p>	<p>자기 생활이 없는 부인 “제가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사귀는 아줌마도 없고, 친구들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부인-1회상담)” “그니까 저는 아이들 키웠고요.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 그냥 있었고, 아이들 낳으라고 해서 다 나아줬고요. 그리고 사달라는 거에 대한 그 물건 갖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노력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끔 있어줬고.(부인-3회상담)” “저는 애들만 키웠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것을 바라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세게 못 나가고 바보처럼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서 애 낳으라고 하면 애 낳고, 밥 하라고 하면 밥 하고, 그냥 그렇게 지켜가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저 보고 그렇게 있으라고 했거든요.(부인-6회상담)”</p>
---	---

(3) 배우자의 엄격한 규칙과 지나친 간섭

사례 A
<p>부인에 대한 엄격한 귀가 시간 “제가 멀리(해외, 지방) 떠나 있어서 집사람과 한 가지 약속한 게 있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집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남편-2회상담)” “아들과 와이프만 집열쇠를 가지고 다니고 나는 집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주된 이유가 내가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가 있어야 되니까. (남편-4회상담)”</p> <p>남편의 과도한 역할 “제가 동서와 상의를 하는데 동서와 대화를 했다고 하면은 대화내용을 남편이 다 알아야 해요. 남편 모든 대화를 다 알아야 해요. 거짓말하면 맞아요. (부인-3회상담)”</p> <p>지나친 남편의 요구 “평상시에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특수한 상황으로 집사람이 과거보다는 노력을 2배, 3배 더 노력을 해야지요. (남편-7회상담)” “집사람이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고, 저를 못 따라 오면 끝내라 이거죠. 왜냐하면 주위환경이 나빠진 거예요. (남편-7회상담)”</p> <p>남편의 과도한 역할과 감시 “남편은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제 핸드폰을 다 추적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제 핸드폰도 못쓰게 다 죽여 버렸어요. (부인-9회상담)” “남편은 제 핸드백 속에 돈이 얼마가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있는 걸 봤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저는 쉽게 백에다 돈을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남편은 하나하나 그걸 체크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몰랐지만 남편은 옛날에도 제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돈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비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지갑에 돈이 얼마가 있는 걸 봤는데,</p>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 껄뻘했던 거죠. (부인-10회상담)"

남편의 일방적인 강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줘야지. 그게 100% 나쁜 일이 아닌 다음에는 나를 따라 줘야지. 와이프를 내가 믿을 수 있게 저를 만들어줘야지요. 왜 내 뜻을 못 따라 주냐 이거예요. 나한테 왜 믿음을 못 주냐 이거예요. (남편-13회상담)"

남편의 과도한 역할
 "그날 교수님하고 상담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남편이 제 스케줄을 자기가 짜 놔더라고요. 제가 쉬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다 짜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화가 난거예요. (부인-15회상담)"

남편의 일방적인 행동과 요구
 "그 분은 항상 그래요. 화나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하나니까요. 그날도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타고 오는데, 차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차를 탄 데로 돌리기에 '왜 그쪽으로 가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저를 음침한 쪽으로 데리고 갔었어요. 내가 그 옷을 입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고 출근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 옷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부인-16회상담)"

2) 의사소통문제

(1) 역설적인 의사소통방식

사례 A	사례 B
<p>두려운 남편과 어떤 이야기들 해도 불씨가 됨 "제가 대화하기가 두렵죠. 어떻게 말해야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불씨가 되니까. 말하는 게 두렵죠. (부인-6회상담)"</p> <p>포투리를 잡는 남편과 답답해지는 부인 "제가 간통죄로 조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저도 조서를 받고 상대방도 조서를 받고 하는데 서로 틀리니까 대질신문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아니다, 맞다는 것을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남편은 가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왜 네가 거기 가서 뚜렷하게 주장을 못하고 상대방을 뺀이라도 못 치고 눈이라도 못 후비고 왔느냐?'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을 분명히 했는데 남편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답답한 거죠. (부인-6회상담)"</p> <p>전 남자에게 이중구속메시지를 사용하는 남편 "그제 경찰에 대조 신문할 때 그 얘길 했었어요. 잘못을 했으면 시인을 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했더니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아주고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p>	<p>두려운 부인과 어떤 일을 해도 욕먹음 "집사람은 지금 가정생활에 일체 손을 안대요. 아이들 아침밥만 간신히 챙겨주고, 나머지는 갔다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빨래야 세탁기가 하는 거니까. 세탁기를 하나 돌려도 집사람이 밖에 나갔다 오면 막 성질을 내요. 그걸 누가 그렇게 다 돌리라고 그랬냐고. 구분을 해야지. 제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남편-4회상담)"</p> <p>부인의 이중속박 메시지와 남편의 거짓말 "남편 못 믿지요.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항상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믿어 봐라. 믿고 살면 실망 안 시키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제가 그랬어요. '바람 피울 거면 바람피우기 전에 이야기해라. 깨끗하게 도장 찍어준다.'라고요. (부인-5회상담)"</p> <p>남편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인 "제가 바보, 병신이 되더라도 저는 진실을 이야기 해주는 남편이 좋아요. 제가 나쁜 년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도 악처가 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부인-5회상담)"</p>

<p>파를 하느냐 한두 번 그랬느냐 하더라고요. (부인-6회상담)</p> <p>남편의 요구를 이해 못하는 부인 “남편이 저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차안에서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어요. 이 소송으로 인해 갈등도 오고 괴로워요. 남편이 소송을 해 왔으니까. (부인-7회상담)”</p> <p>남편의 무언 가운데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같으면 예를 들어 언짢은 기색이 보이면 풀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좋았어요. 깨끗하고 청결했어요. (남편-7회상담)”</p> <p>부인이 이해할 수 없는 남편과 남편의 변덕 “저도 남편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남편은 서로가 안 좋을 때는 소지품이라거나 옷가지가 보기 싫데요. 그래서 방에 있던 걸 방 밖으로 다 내 놓죠. 딸 방이 지금 비어있으니까. 딸 방으로 제 소지품을 다 옮겼어요. 그런데 어느 때 또 저 사람이 변할지 몰라요. (부인-11회상담)”</p> <p>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모르는 부인 “그런데 남편은 항상 제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입버릇처럼 네 태도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상 저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를 모르겠어요. (부인-11회상담)”</p> <p>이해할 수 없는 남편 “저는 지금 남편을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입장도 또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이 싫으면 왜 같이 있겠습니까? 벌써 나갔죠.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는 시선이 그렇지가 않아요.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이렇게 자꾸……. (부인-13회상담)”</p>	<p>남편에 대한 실망감 “차라리 그 여자가 아가씨였으면 미쳐서 집 나갔을 남자지만, 차라리 서로 정말 좋아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차라리 훌가분하게 보내주겠어요. 차라리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낫지 세상에 가정 있는 여자가 가정 있는 남자한테 좋아한다고 흘랑 넘어가는 남자는 필요 없어요.”(부인-5회상담)”</p> <p>부인의 이중구속메시지 “자, 다그칠 부인을 생각하면 밖에서 잔다는 말이 안 나와요. 또 건수가 잡혀서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그날 밤 안 부딪치고 잘 수 있는 방법이 마루바닥에서 자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루바닥이 좋아서 자는 게 아니고, 부인 무시해서 자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하세요?(치료자-11회상담) 예. (부인-11회상담)”</p>
--	---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사례 A	사례 B
<p>부인의 불륜과 남편의 구타 “제가 집사람의 사건에 대하여 가족에게 다 얘기했죠. 이 일이 터졌을 때 내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러 왔</p>	<p>남편의 불륜 관계에 대한 부인의 집요한 추궁 “어떤 순간 순간적으로 집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들 때 제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당신</p>

다가 저랑 집사람이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제 성격이 무 자르듯 자르고 결단력 있는 성격이니까 저 오빠 성격에 이혼한다면 이혼하는 성격이다 못 볼 거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자 여동생이 오빠들한테 얘기했죠. 말리지 않으면 큰 문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사건 나고 쉬쉬하다가 제가 동생들을 만났죠. 만나서 얘기를 했죠.(남편-4회상담)

남편으로부터 억압된 생활과 대화가 없음

“저는 결혼해서부터 억압된 생활했어요. 남편은 보수적이고, 남편과는 대화가 없었고 남편은 저보다도 형제들 간의 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어요. 억눌린 생활을 계속해 왔어요. (부인-1회상담)”

부인을 상대해 주지 않는 남편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이 전혀 나와 상대를 전혀 안 했어요. 그 부분에서 남편에 대해서 가장 배신감을 느꼈어요. 나중에는 제3자를 통해 알게 됐어요. (부인-1회상담)”

분노조절을 못하는 남편

“저는 남편에게 말을 못했어요. 신혼 초에는 많이 다투었어요. 남편성격은 순간적으로 거칠어져요. 분노를 컨트롤 못 해요. (부인-1회상담)”

대화가 안 되는 가족

“우리 가족은 대화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인-1회상담)”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 남편

“아이들이 아파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해요. 저하고는 대화가 잘되는데. (부인-1회상담)”

표현 능력이 부족한 남편

“남편은 항상 자기위주이고, 표현능력이 부족했어요. (부인-1회상담)”

대화가 없었던 시부모관계와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

“저희 부모님은 대화라는 것은 거의 없고 항상 일방통행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지요. 배다른 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자꾸 가로 막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누이들하고 어울리면 남자가 쫓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예요. 또 같은 또래 동네 친구들과 하고도 못 어울리게 했어요. (남편-2회상담)”

은 그 여자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 당신 그 여자하고 어디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집사람이 원하는 어떤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추궁했어요(남편-1회상담)”

남편의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하는 부인

“예. 직장 내에서 이 여직원, 저 여직원 밥 같이 먹고 모 일을 하는데 가서 어떤 여직원하고 일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한 6여년까지 거의 매일 매일 그니까는 일년이면 한 300일정도? 300일 정도를 거의 매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남편-1회상담)”

과거를 잊지 못하고 반복하여 언급하는 부인

“근데 지나고 나서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 머릿속에 남질 안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그게 머릿속에 10년이고, 5년이고. 지나간 일들을 다 기억을 해요. 집사람이 말하는 거의 70%는 저는 기억을 못해요.(남편-1회상담)”

남편에 대한 부인의 경고와 집착

“그 여직원들하고의 그런 어떤 일들을 다 연상이 되면서 제가 그래서 같이 다니지 말라고 경고 했거든요? 같이 밥 먹지 말아라. 여자와 단 둘이서는 차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인-2회상담)”

“바람피우지 말라. 그거는 단 둘이서 차 마시고 밥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거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경고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버릇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울려라. 여럿이서 재밌게 어울려라. 누구랑 단 둘이서는 하지 말라.”(부인-2회상담)”

집요하게 따짐

“그니까 전화 온 것을 설명 했어요. 그 여자도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자기도 아는 사람 아니냐. 안테요. 너도 아는 사람이다. 왜 전화를 끊느냐. 이해가 안 간다. 자기 보기에는. 나한테 무슨 저의가 있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어떤 의심할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 작년 가을부터 헤어졌다는 그 여자가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서, 내가 가르쳐 줬가지고 나 몰래 또 전화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뜻에서 나의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왜 전화했는지 나는 모르는데, 나한테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나한테

<p>남편의 분노표출 방식과 대화단절 “남편이 화가 나면 늘 이런 식이니까 제 주장을 항상 내세우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다 하면은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부인-3회상담)”</p> <p>대화가 없는 남편 “8년 동안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설명해 주는 법이 없어 잘 모르고 있죠. (부인-3회상담)”</p> <p>부인의 말대꾸와 남편의 폭행 “제가 남편이 너무너무 해서 말대꾸를 했죠. 말대꾸를 심하게 하니깐 더 심하게 때리더라고요. (부인-3회상담)” “그래서 감정이 상할 때는 제가 남편한테 좀 말대꾸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제가 자주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남편한테 말대꾸를 하니깐, 남편으로부터 또 날아오고, 제가 참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자제가 안돼요. (부인-10회상담)”</p> <p>아빠의 과격한 행동과 아들의 반항 “아들이 아빠를 때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은 아빠가 과격하게 나오니까 아들이 맞대응을 하더라고요. 같이 맞대응을 하면 아들이 손이 올라가요. 아들이 과격하게 나오니까 남편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부인-3회상담)”</p> <p>남편의 욕하는 말투 “남편은 대화할 때마다 욕을 잘 쓰거든요. 전화 해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저렇게 할 경우에는 저와 안 살 줄 알았거든요. 공개적으로 하니깐……. (부인-3회상담)”</p> <p>시댁일로 인한 부인의 인내 “거기서 제가 남편에게 맞대응을 하면은 구타를 하죠. 저는 참는 거죠. 시댁식구들과의 인짬은 일이 있을 때에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은 저를 때려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속상하면 이야기 할 때가 없어 혼자 삭히고 맙니다. (부인-3회상담)”</p> <p>최정식구를 이용한 남편의 의사소통 방식 “남편은 저에게 왜 너만 가서 오해 풀어주고 사과하</p>	<p>테 실트를 하라 이거죠. 암만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고.(남편-4회상담)”</p> <p>“아니면,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어요. 자기가 일부러 대답이 맘에 들 때까지 계속 꼬치꼬치 물어요. 그니까 대답을 했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면…….(남편-4회상담)”</p> <p>“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엔 좀 나쁜 기억을 한쪽으로 잡고, 좋은 쪽으로 텔레비전을 보든, 영화를 보든, 만화책을 보든, 비디오를 보든 무슨 생활을 하던 간에 대화를 한번 해보려는 시도를 하면 집사람이 말꼬리를 잡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등산을 간다, 어떤 산이 좋다, 어떤 강이 좋다, 어디가면 모가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되돌아 와요. 어떤 년하고 갔냐고……. 어떤 년하고 가서 그렇게 좋냐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무슨 산, 무슨 산 좋다. 어떻게 여길 가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년하고 거길 갔었냐고.(남편-4회상담)”</p> <p>“동거부터 결혼하고 나서는 5년 동안은 그 전 여자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집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설득과 질문 공세를 썼고, 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많이 수그러들었다는 이야기예요. 5년 지나고 나서는 시부모와의 관계, 가족관계에서 불만을 더 많이 터트렸고, 지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남편-5회상담)”</p> <p>“그런 감정이 그렇게 쉽게 변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거든요? 제 남편은 그런 감정 생각 안 난다. 무조건 모른다. 생각 안 난다. 대답을 회피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불만이에요. 할 줄 알고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부인-1회상담)”</p> <p>“저는 진짜 나쁜 게 집요해요. 남편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그런 어떤 감정들을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저는 너무 속상해요.(부인-2회상담)”</p> <p>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 “솔직히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는 거짓말하면서 무마시켜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부인-5회상담)”</p> <p>“그때그때마다 상황은 여러 가지가 틀리는데, 격한 감정 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쪽에서 격한 감정이 일어나서 또 다른 쪽이 격한 감정을 같이 하면 그 끝에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의가 아니게 예상을 하게 되고, 원치 않은 결과를 상상을 하게 되면 저절로 나쁜 결과를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p>
--	--

고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왜 너만 병신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고 나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이 터지면서 저한테 2번 나가라고 말했어요. 남편 성격을 알아서 그러는데 제가 나가면 친정식구들을 못 살게 굴 것 같아요. 전화해 가지고 육설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교육 잘못 시켰으니까 데려가라고 해요. (부인-3회상담)

남편의 폭로에 대한 부인의 분노 표출

“일요일 날 여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역정을 낸 거예요. 자기의 부정에 대하여 나에게 역정을 낸 거예요. 뭐냐 하면 시시콜콜 전부 시누이가 아는데……. 집사람이 하도 치밀어 올라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괴로웠다 하면서 분노를 터트리더라고요. (남편-4회상담)”

고 제 스스로 입을 다 물어 버리는…….(남편-5회상담)

“네. 그것이 한 3-4년 동안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그런 가정을 축 보고, 집안에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것에 제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친구들 만나기도 제 스스로 답을 쌓은 것 같아요. 말을 잘 안하고, 학교에 가서도 누가 말을 시켜야 대답을 하고, 제 스스로 먼저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친구들한테도…….(남편-4회상담)”

혼자 감정을 삭이고 넘어감

“집사람 제 입장에서 서서 이해를 하는 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답답하고 갑갑한 느낌이 들고 내면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일이고, 나로 인해서 실망을 하게끔 만든 일이니까 나 혼자 삭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남편-5회상담)”

남편의 폭언

“도저히 너하고 못 살 거 같으니까 너 집 나가라. 너 왜 사람이 인내심을 가지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했어요. (남편-4회상담)”

대화를 못하는 아들

“저는 제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저는 자신감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못 털어 냈어요. (아들-5회상담)”

아들과 아버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아빠하고는 어려서부터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가족이 서로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못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아빠는 ‘네가 뭘 알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뽀꾸야’라고 하면서 저를 약간 무시했어요. (아들-5회상담)”

부인에게 무안을 주는 남편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남편은 저에게 가끔씩 이게 뭐냐며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못 하나 하면서 가끔씩 편잔을 주곤 했어요. (부인-7회상담)”

대처방식을 모르는 남편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고, 내 자신을 몰라요. (남편-8회상담)”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부관계

“글쎬요. 소송에 대한 남편의 입장을 제가 물어 볼 수도 없고, 남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연기 된 걸로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인-8회상담)”

질문과 무응답의 의사소통방식

“제 와이프가 항상 저보고 시시콜콜하게 뭘 물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라든지, 제 와이프가 저에게 물

을 때 제가 대답을 안 하면 '왜 부부간에 그런 대답을 왜 안하느냐는 식이었어요. 이제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거꾸로 되었지요. 그 전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8회상담)"

대화가 없음

"그 전에도 남편과 대화가 별로 없었고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부터 더 한거죠. (부인-9회상담)"

아들에게 엄마에 대하여 폭로하는 남편과 폭발하는 부인

"남편이 아들한테 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니깐 굉장히 모욕적이더라고요. 듣는 순간에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순간 아들한테까지 남편이 저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거기서 제가 좀 폭발을 했죠. 아빠가 되가지고 엄마를 저렇게까지 아들한테 욕보일 수가 있는가. (부인-10회상담)"

대화할 상대자가 없는 아들

"저는 불안할 때, 가족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해요. (아들-11회상담)"

문제와 해결책을 모르는 아들

"부모님 관계가 나쁜 것은 아는데 뭐가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모르겠고요. 감이 안 잡히고요. 그리고 이혼 문제는 매일 싸울 바에는 그냥 서로 안보는 게 낫 것 같아요.(아들-11회상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부

"저희들은 싸움을 하면, 서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서로 안 해요. 물론 저도 잘못된 일이 있지만, 애 아빠도 물론 최근에는 제가 잘못해서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지만, 그 잘못을 인정을 안 하니까.....(부인-11회상담)"

엄마의 질문과 아들의 짜증내는 표현방식

"아들은 말을 잘 안하죠. 제가 아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자주 물어요. 그러면 아들은 짜증을 내요. (부인-11회상담)"

모욕적인 남편의 말

"(아들 앞에서) 쌍말로 얘기해서 옛날에 한번 '걸레는 영원한 걸레다. 그럼 그거는 빨아도 걸레다.'라는 말이 나한테서 나오더라고요. (남편-12회상담)"

부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남편의 말투

"작년에 어머니가 병원에 1년 계시는 동안 제가 간호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의 없이 간호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어머니에 대하여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깥으로 그 새끼 만나러 돌아다닌다 하고 어머니한테 한 것이 모두 가식이라는 이거예요. 남편이 저를 완전히 묵사발 시킨 거죠. (부인-13회상담)"

설명 없는 남편의 폭행

"제가 전에 동창회에 갔다가 저녁 7시에 집에 왔는데, 겨울이라서 금방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세워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차에 타래요. 그때 남편 인상이 좀 안 좋은 거 같은데, 이 사람이 나랑 어디 갈 대가 있어서 가나보다 하고 차에 타고 갔었어요. 그때 워커 휠이 있었어요. 워커 휠이 그때만 해도 집이 안 들어서고, 전부 배 받았었어요. 거기다 내려놓고 그냥 갔었어요. 남편이 그때 주먹으로 몇 대 때리고 내려놓고 갔었어요. (부인-15회상담)"

남편의 화내는 행동과 남편은 이해할 수 없음

"남편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화내면서 네가 또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가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마음을 알 수 없죠. (부인-15회상담)

표현을 못하는 부인

“저는 제 감정을 아직까지 남편한테 표현해 보질 못했어요. 표현 했다가는 저를 때리니까 저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할말을 안 하는 거죠. (부인-16회상담)”

“저는 남편에게 꼬투리 잡힐까봐 말을 안 하는 거죠. (부인-18회상담)”

표정이 굳어지는 부인

“그런 경우에 사실은 내가 좀 틀어지고 그럴 때 제 와이프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표정도 굳어져 있고, 그런 걸 느껴요. 그런게 있는데, 저도 물론 그랬지만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조금 더 한 발짝 앞서 줬으면 하는 생각도 내가 들거든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보호 받으려는 본능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와이프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요. (남편-17회상담)”

(3) 폭력문제

사례 A
<p>남편의 언어적 폭력</p> <p>“욕을 하죠. 개새끼, 싹팔 새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이 싹팔 년아 네가 왜 전화를 해. 남편이 이 싹팔 년아 빨리 집에 들어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시킨 음식도 안 먹고 집으로 바로 왔어요. 제 남편은 대화로 하려하지 않고 욕으로 하려고 하니까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죠. 남편은 화가 나면 욕부터 해요. (부인-3회상담)”</p>
<p>남편의 신체적 폭력</p> <p>“심하게 했을 때는 방 빗자루로 전신을 심하게 때렸어요. 저를 발로 차고 머리를 끌어당기고 그리고는 남편이 제가 가스 중독이라고 친정집에 전보를 쳤어요. (부인-3회상담)”</p> <p>“저는 신혼 초부터 결혼 한 달도 안 되서 구타를 당했어요. (부인-1회상담)”</p> <p>“엄마가 잘못된 것은 맞는데 방식에서는 아빠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폭력 쓰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들-5회상담)”</p>
<p>남편의 욕과 남편에 대한 부인의 분노</p> <p>“남편이 저에게 쓰는 욕을 저는 안 쓰고 싶어요. 진짜로 이렇게 때려죽이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부인-15회상담)”</p>
<p>자녀에 대한 아빠의 폭력</p> <p>“전에도 아빠가 자주 폭력을 쓰니까, 남편은 애들하고 잔정이 없어요. (부인-3회상담)”</p> <p>“남편이 그 전에는 애들을 굉장히 거세게 다루었거든요. 한번 잘못했다 싶으면 매도 들죠. 그러니까 아들이 중학교 때 잘못된 게 있어서 아빠가 호되게 때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빠가 저번에는 무슨 심부름을 하라고 했는데 아들이 자느라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빠가 뭘 갖고 나오라는데 제가 아들에게 빨리 일어나서 갖다 드려라 그랬는데도 애는 안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자꾸 전화를 하니까. 제가 전화를 아들한테 바꿔줬거든요. 아들이 전화기를 치더라고요. (부인- 9회상담)”</p> <p>“아빠가 화날 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랬던 적 있어요. (아들-5회상담)”</p>

아빠의 위협과 아들의 기억

“며칠 전에 엄마와 아빠가 싸우셨는데 그때 아빠가 칼을 집었어요. 그런데 그 때 칼 꺼낼 때 들었던 소리가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제가 아빠한테 참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칼을 집어넣었어요. (아들-11회상담)”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

“이게 발각이 되고 나서는 두 달 동안 남편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거를 많이 당했거든요. 옷을 다 벗겨 놓고 상대방 남자하고 성관계 했던 그 장면을 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재연을 하지 않으면 때렸으니까요. (부인-9회상담)”

3) 기타

(1) 바람기

사례 A	사례 B
<p>부인의 바람기 “저는 제 집사발이 바람기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미안한 마음에서 우리 가족만 생활하면서부터 집사람을 그 전의 얽매인 생활로부터 많이 풀려 놓았는데 이것을 악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1회상담)”</p>	<p>남편의 바람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20일정도 지나니까, 어떤 여직원한테 잘 사냐고 안부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항상 보면 사무실 여직원하고, 그런 어떤 거를 뿌리고 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부인-1회상담)”</p>
<p>남편의 신체적인 접촉 “남편은 손 갖다대는 버릇. 항상 이렇게 얼굴에 접촉을 잘해요.(부인-2회상담)” “남편은 연애할 때 접촉을 하는 그런 장난을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니까 제가 그런 거를 한 사무실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그런 습관 들을 봤기 때문에……(부인-2회상담)”</p>	
<p>성적으로 밝히고 진실하지 않은 남편 “저는 밝힌다고는 생각 안했는데, 이번에 딱 이 일을 당하면서 성적으로 밝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아요. 전 진실한 남편 줄 알았거든요. 진실하지가 않더라고요.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 하는 거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남편의 습관과 그런 어떤 행동들을 다 알거든요.(부인-2회상담)”</p>	
<p>남편의 새로운 여자에 대한 호기심 “습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불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호기심……(부인-2회상담)”</p>	
<p>여성과 습관적 신체 접촉을 인정하는 남편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없다고는 생각 안하는데, ‘그렇게 내가 심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었으니까.(남편-4회상담)”</p>	

(2) 고소와 법정소송

사례 A
<p>“가정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해야 간통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했지요. (남편-1회상담)”</p>

(3) 인내와 자신의 삶이 없음

사례 A	사례 B
<p>자기 생활이 없는 부인 “제가 많이 참았죠. 아이들도 크고 제 생활이 없어요. (부인-1회상담)” “저는 남편이 하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했어요. (부인-7회상담)” “글쎬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남편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내가 조그만 것들에 대하여 나에게 신뢰를 안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그게 힘들면 나가라’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수하고 여태까지 참고 참고 계속 참았어요. (부인-10회상담)”</p>	<p>자기 생활이 없는 부인 “제가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사귀는 아줌마도 없고, 친구들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부인-1회상담)” “그니까 저는 아이들 키웠고요.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 그냥 있었고, 아이들 낳으라고 해서 다 나아졌고요. 그리고 사달라는 거에 대한 그 물건 갖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노력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끔 있어줬고…….”(부인-3회상담)”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청소년기 들어가고서부터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부터 마음이 맞고, 제가 엄마를 이해해 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러는 거에서 엄마도 위로를 받으셨는지, 그때부터…….”(부인-3회상담)”</p>

(4)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부인의 사회생활 시작

사례 A
<p>남편의 사업 어려움 “제가 밖으로 돌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가지고부터 제가 그런 거 같아요. 사업을 반복하면서 어려웠어요. (부인-1회상담)” “7-8년 동안 남편의 고정적인 직업이 없었어요. (부인-3회상담)”</p>

(5) 가족과의 별거

사례 A
<p>떨어져서 생활함 “저는 결혼생활 중 반 이상을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1회상담)” “제가 알기에는 부모님이 계속 떨어져서 살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산 것이 4-5살까지 기억이 나요. (남편-2회상담)”</p>

(6) 배우자의 불륜관계에 대한 엄격성

사례 A
<p>아버지로 인한 남편의 불륜에 대한 엄격성 “저는 제 자신의 철칙이에요 제 가족 사랑을 얘기 했지만 제 아버님이 마누라가 셋이기 때문에 남들(친구들)과 만남에서 노래, 술, 여자하고 안 해요. (남편-2회상담)” “결혼 전까지는 술 먹고 담배를 피웠으나 결혼 후에는 담배 끊고 여자관계도 일체 끊고 심지어 제가 고자라는 예기가 나왔어요. (남편-2회상담)”</p>

(7) 남편과 현재 배우자와 외도했던 상대방과의 차이

사례 A
<p>남편과 달리 따뜻한 “저희 남편하고는 많이 틀렸죠. 많으면서도 때때로 제가 많은 좌절도 했었어요. 만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끌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마음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인-3회상담)”</p>

(8) 배우자에 대한 기억

사례 A
<p>남편에 대한 좋은 기억 없음 “남편에 대한 특별히 좋았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인-3회상담)”</p>

4)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분노와 불신임, 위축감 및 피해의식

사례 A	사례 B
<p>남편의 위축감 “자연적으로 불륜에 관한 화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위축이 되어서 대화에 못 끼는 거예요. (남편-1회상담)”</p> <p>부인에 대한 남편의 분노 “그 자식(부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5분 동안 공갈협박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 자식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사람처럼 보일지 않았어요? 그 감정이 다음 날 아침까지 오래 가더라고요.(남편-2회상담)” “텔레비전에 불륜관계가 나오면, 저를 불러요. ‘내년하고 똑같아.’라고 하면서 저한테 욕을 퍼부어요. (부인-3회상담)”</p> <p>남편의 분노와 위축감 “제 스스로가 문제에 부딪히면 예를 들어, TV 연속극을 보다가 불륜관계가 나오며는 끝까지 보지를 못해요 충분한 화젯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임 같은데 가며는 우리나라 때 되면 꼭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2회상담)”</p> <p>부인에 대한 남편의 불신 “이 일이 터지면서 남편은 저에게 통장도 뺏어갔어요. (부인-3회상담)” “제가 무진장 노력을 했지만, 제가 상대방을 근본적으로 못 믿어요. (남편-10회상담)”</p>	<p>남편에 대한 불신 “그 10년 동안의 믿음을 그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트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저렇게 노력을 했나, 똑같이 하지만 저 모습을 저 남자가 자기 미쳤다고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망가트리지 않을까하는 불신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있어요.(부인-14회상담)”</p> <p>남편의 위축 “밤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어쩔다고 하면 머릿속에서 그 드라마는 꼴도 보기 싫은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드라마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뱉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연상을 하게 되니까…….(남편-7회상담)”</p> <p>부인의 분노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날 저희 남편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자동차 열쇠 키며 제가 다 뺏어 놓고요. (부인-1회상담)”</p>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아직까지도 제가 그 남자를 못 잊는 걸로 생각해요. (부인-6회상담)”

남편의 분노와 피해의식

“내가 너무 화가 치밀어서 이게 뭐냐 너희들이 저지른 일 내가 경찰서, 법원 가서 처리하러 다니고 나중에 내가 덮어 쓰고, 우리사회에서는 남편이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에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죽 못났으면 마누라를 다른 남자에게 뺏겼겠냐. 그리고 그 남자가 나한테 한달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 정복자의 태도예요. 내 마누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농락하고 있다는 정복자의 태도였어요. (남편-6회상담)”

“너(부인)는 이 병 고치는데 한달이면 끝난다고 제가 그랬어요. 너는 이 남자관계 끊는데 한달이면 끝난다. 나는 이병을 치료할 때 석 달이 걸지, 1년이 걸지 모른다. (남편-8회상담)”

부인의 위축감

“현재로선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제가 지금은 아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일을 깨끗이 끝나고 나면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부인-7회상담)”

남편의 패배감과 피해의식

“그래서 결혼은 가정이 어땠든 간에 남자가 결국은 패배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딜 가도 우리 가족들이나 이 내용을 아는 누구한테 가도 변호사나 교수님한테 와도 나한테 인내를 요구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남편-10회상담)”

“나의 웅어리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맞는 놈은 평생 갑니다. (남편-13회상담)”

“저 자신이 정신적으로 황폐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전하고 모든 면에서 내가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13회상담)”

“주위에서 나를 옹호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너 참아라. 네가 여기서 한 걸음 참으면 더 낫다고 하는데, 그걸 당하는 나는 더 이중으로 괴로운 거예요. 웅? 그렇게 말해버리면서 ‘아, 일이나 열심히 하며 살란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남편-17회상담)”

5) 외도에 대한 당사자의 죄책감

사례 A	사례 B
<p>남편의 구타와 부인의 죄책감</p> <p>“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남편과 자식들한테는 죄인이죠. 이 일로 죄스럽게 생각해요. 남편한테 구타도 당하고 조금이나마 남편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써 제가 버티거든요. (부인-3회상담)”</p>	<p>남편의 뉘우침</p> <p>“한달 보름 전에 애들 엄마한테 내가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있었어요.(남편-13회상담)”</p>
<p>남편의 이혼소송과 부인의 죄책감</p> <p>“남편은 지금 이혼소송을 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식과 남편한테 미안해서 남편한테 당신의 처분대로 받겠다고 말했어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저는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부인-3회상담)”</p> <p>부인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뉘우침</p> <p>“저는 제 잘못을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뉘우치고 있어요. 저의 생활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p>	

보는 관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보수적 이예요. 남편도 물론 그보다 더 하지만, 남편이 잘못 됐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제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런 상태예요. (부인-9회상담)

6) 심리·신체적 증상

사례 A	사례 B
<p>소화가 안 되고 언니가 위로해 줌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전에는 별로 모르겠는데 지금은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니한테 말을 많이 해요. 언니가 위로를 많이 해 줘요. (부인-3회상담)”</p> <p>아들의 불안과 거리감을 둠 “아들이 요새는 집을 가끔 안 들어와요. (부인-3회상담)” “저는 음악을 크게 틀면 불안해져요. 지금도 조그맣게 틀어 놓고 들어요. 제가 잘 때도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잤어요. (아들-5회상담)” “엄마 아빠가 싸울 때 힘들어요. 요즈음도 불안하긴 불안해요. (아들-11회상담)” “저희가 싸울 때 아들이 아주 굉장히 불안해하고, 말수가 줄어요. 엄마한테 접근을 잘 안하려고 하고, 방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신경질을 잘 내요. 예를 들어서 식사 때가 되어서 밥 먹으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고, 말을 더 붙이려고 하면 짜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들이 크다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부인-11회상담)”</p>	<p>소화가 안 됨 “소화가 안 되도 참을 때 있어요.(부인-11회상담)”</p> <p>부인의 우울증 “우울이 집에 있을 때는 조금 있다가 밖에 나가면 괜 찮아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내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느낀 것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잤어요. 제가 정말 우울증인가…….(부인-6회상담)”</p> <p>자녀의 불안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 갑자기 학원에서 똥을 싸어요.(부인-1회상담)”</p> <p>자녀들간의 악화된 관계 “큰 아이한테는 조금씩 발견이 된 부분인데, 점점 작은 아이랑 안 자요. 지금 방은 3개지만 하나는 구조상 들어갈 수 없는 방이기 때문에 4학년 2학년짜리를 한 침대에 같이 재우거든요. 큰 여자아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 자려고 해요. 거실에서 숙제하다 말고 자고, 소파에서 자고…….(남편-6회상담)”</p>
<p>아들의 아토피성 피부와 주의산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성 피부라 피부가 간지러워 집중 같은 것을 잘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산만한 것 같아요. (아들-5회상담)”</p> <p>부인의 우울증 “제가 일체 외출도 하지 않았는데 우울증이 나타나더라고요. (부인-10회상담)”</p> <p>아빠의 칼 사건 이후의 아들의 불안 “아빠가 칼을 꺼냈던 사건 이후에 부모님이 싸울 때 더 불안해요. 그 다음부터 집에 나가 있을 때 계속 집에 전화하게 되요. (아들-11회상담)”</p> <p>아빠에 대한 아들의 악몽 “최근에 들어서 아빠를 막 죽이고 싶다는 꿈을 꾸요. (아들-11회상담)”</p> <p>분쟁한 엄마에 대한 아들의 울음</p>	

“엄마가 맞고 사는 게 매일 불쌍해서 엄마 생각하면서 운적 많아요. (아들-11회상담)”

부인의 신체적인 증상과 증도

“집에서 아침에서부터 뒷골이 당겨서 그런데 전철 입구에서 저도 모르게 악 소리를 내면서 제가 넘어졌어요. 지금도 병원을 가야하는데, 지금도 기침을 하면 막 당기고 그렇거든요. 멍이 시퍼렇게 들기도 했어요. (부인-13회상담)”

거칠어진 아들

“아들이 옛날에 비해서 성격이 좀 더 거칠어졌어요. 그 전에는 좀 지내 누나가 뭐라고 하면 그거를 다 수궁을 하는 편이었는데, 근래 와서는 누나한테 자꾸 대들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가지고 누나한테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그전하고는 많이 틀리죠. 저한테 대화를 잘 안하려고 해요. (부인-16회상담)”

소화가 안 됨

“요새 위가 좀 안 좋거든요. 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그랬는데, 속이 자꾸 울렁거려요. 울렁거려서 소화가 안 되고, 변을 잘 못보고……. (부인-16회상담)”

7) 부모의 폭력적인 성격을 학습하는 자녀

사례 A
<p>폭력적인 성향을 보임</p> <p>“저 성격도 아빠의 폭력적인 성격을 닮아 가고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무거워요. (아들-5회상담)”</p> <p>“아들이 요즘 근래에 와서는 폭력적인 거를 막 쓰거든요. 짜증이 나면 옷도 뜯고. 며칠 전인데요 지퍼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잡아 뜯더라고요. 근데 아빠 앞에서는 전혀 안 그래요. (부인-9회상담)”</p>

8) 부모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자녀

사례 A
<p>누구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함</p> <p>“아빠 말 듣고 엄마 말 들으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말 들으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빠 쪽에서 아빠가 말하면 아빠 말이 맞고, 나중에 제가 혼자 생각해보면 누가 옳은지 헷갈려요. 개인마다 아들한테 얘기 한거는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엄마 아빠가 함께 얘기하는 것보다 저에게 서로 각자 얘기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아들-11회상담)”</p> <p>“엄마랑 얘기하면 그게 아니다. 혼란스럽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그러다가 그냥 포기해 버려요. (아들-11회상담)”</p>

9)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이유

사례 A	사례 B
<p>경제적인 무능력</p> <p>“저는 돈도 없거니와 제가 현재 남편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좀</p>	<p>인생의 오점을 남기기 싫음</p> <p>“핑계라면 핑계고,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인생의 오류를 이혼녀라는 오류를 남기고 싶지 않</p>

<p>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부인-3회 상담)</p>	<p>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가슴에 상처를 다 치료하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부인-1회상담)</p>
<p>가족들의 요구 “아들이 엄마 나를 봐서 아빠와 살아달라고 했어요. (부인-3회상담)” “저는 부모님이 같이 살기를 원해요. (아들-5회상담)”</p>	<p>손해 본다고 생각함 “이혼의 단계는 아니고, 지금 이혼 해봤자 나한테 더 손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지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부인-2회상담)</p>

10) 부부간의 양가감정

사례 A	
<p>남편의 부부관계유지에 대한 헛갈림 “저는 짐사람이 정작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내가 있잖아요. 내가 과거같이 거리를 확보하며 다녀야 하나. 또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낚새를 췌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모른척하고, 그러면 ‘새끼, 저 새끼, 저 마누라는 다른 놈하고 놀아나는데 그런 새끼가 뭘 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감수해야 하느냐. 또 같이 산다니까. 그거를 붙어서 같이 결합한다니까 그거에 대한 게 또 불안한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생각하기가 싫어요. 나 혼자 사는 게 편하지. 나쁘게 얘기해서 지가 저지른 일을 지가 알아서 하지 왜 내가 감싸면서 불안한 길을 가야하느냐. 이거 생각하면 그 자체를 생각하기가 싫어. 이렇게 나 갔다가 방향이 설정 됐다가도 한 발짝을 못나가는 거예요. (남편-8회상담)”</p>	
<p>부인의 헛갈림 “그래서 지금 부인께서도 그걸 헛갈려 하시는 거고요,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 헛갈려 하시고, 저도 지금 상담을 하면서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의 노선이 불분명하니까 부인께서도 불분명하고, 부인께서는 남편과 같이 살아 보려고 하시는데 남편의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치료자-8회상담)”</p>	

2. 상담 후 부부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1) 자이분화문제

(1) 시댁과의 분리

사례 A	사례 B
<p>시댁과의 거리를 둠 “와이프가 나는 당신네 식구 보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안가면 안 되냐 이거예요. (남편-12회상담)</p>	<p>약간의 거리를 둠 “어머니에게 말뚝은 알아들으니까 제가 바쁘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 길게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회사사무실로 전화를 자주 하셔서 도중에 받으니까 길게 자주 이야기 하다 보면 옆에서 자주 듣고, 간단간단하게 어머니가 알아듣고 끊으세요.(남편-14회상담)”</p>

(2)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분리 및 자아분화

사례 A	사례 B
<p>부인의 방어벽이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남편의 인정 “제가 시댁식구들로부터 집사람의 방어벽이 못 되어 주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남편-1회상담)”</p> <p>각자의 일에 집중 “집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하면 잡념을 없앨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 순간에 잊어버리더라고요. (남편-14회상담)”</p> <p>느슨해진 남편과 부인의 보고 “남편이 이제는 일이 끝날 때 더 이상 차를 가지고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늦을 경우, 조금 늦으면 늦는다고 항상 전화를 해줘야 해요. 전화를 안 해 주면 저에게 화를 내죠. 옛날에도 남편은 제 스케줄을 항상 다 알아야 했었어요. 저는 그 전에 저녁 7시 넘게 집에 들어오면 늦으면 저에게 화를 내곤 그랬어요. 남편은 집에 항상 전화했었죠. (남편-15회상담)”</p> <p>변화하려는 남편 “내가 좀 내 나름대로의 가치가 허물어지고, 거기에서 같이 뒤집어지는 거냐, 제가 두려운 거는 사실 그런 거예요. (웃음) (남편-20회상담)”</p>	<p>부인의 학교생활에 대한 열중 “그냥 학교생활 그것밖에 없어요. 학교생활이 워낙 딱딱하고 10년 동안 아줌마 생활만 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학교생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학교에서 하는 일이 조금씩 조금씩 늘더라고요. 원하지 않게 그 학교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벽차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요.(부인-5회상담)”</p> <p>부인의 홀로서기 “그런데 그런 일 나고서 완벽하게 자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운전도 해야 되고 돈을 벌 일자리도 찾아야 되고 저는 어떻게 되든 혼자되면 살아남을 수 있게끔 제가 희망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제가 혼자 살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다 하기 시작했어요.(부인-5회상담)”</p> <p>자신에게 집중함 “그런데요 제가 정말 고치고 싶은 거예요. 저쪽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네가 네 자신을 추스르라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부인-14회상담)”</p> <p>부인편을 못 들어 준 것에 대한 남편의 인정과 어머니로부터 분리하려는 남편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편을 못 들어준 것 같아요. 문제는 집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시어머니와 집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내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든 좀 잘 되도록 내가 유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들어요.(남편-14회상담)”</p> <p>남편의 표현에 대한 노력 “지금까지 말을 들어서 깨우치는 것이 90%인데, 지금은 50%라도 제가 생각해서 깨우치도록 노력을 하려고요.(남편-14회상담)”</p>

(3) 배우자의 공간적 분리

사례 A
<p>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p>

“그전에는 남편이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일찍 들어 와서 남편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은데, 제가 직장에 나감으로 해서 아무래도 부딪히는 일이 적어졌죠? 그래서 제가 좀 편하더라고요. (부인-9회상담)”
 “저는 떨어져 있으니깐 편하죠. 이제 우선 잊혀져 버리니까요. 건설현장에서 제 생활이 옛날에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남편-20회상담)”

2) 의사소통의 변화

(1) 역설적인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사례 A
<p>불필요한 요구의 감소 “그 전 같으면 제가 그렇게 딴 방에 있으면 남편이 저에게 또 안방으로 안 온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어졌어요. (부인-16회상담)”</p> <p>과거의 패턴을 이해하고 고쳐잡 “이 말해도 걸리고, 저 말해도 걸리고……. 내가 화나고 속상했으면 그 어떤 말이라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치료자-18회상담) 제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초월한지 오래돼요. (남편-18상담)”</p>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사례 A	사례 B
<p>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함 “남편이 교수님한테 왔다가고는 달라졌죠. 저한테 전화를 자주 했어요. 남편이 그 전에는 밥을 먹고 들어오거나 늦을 경우에 저에게 전화를 안 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온다고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늦게 들어간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세 번 정도 했었어요. (부인-3회상담)” “남편과 대화 하는 거는 그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원래 그 분은 말수가 별로 없어요. 제가 결혼생활 하면서 말없는 것이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부인-16회상담)”</p> <p>부드러워진 말투 “남편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 전에는 음성이 많이 높아지고 상스러운 말을 했는데, 이제는 상스러운 말이 줄었고, 욕박지르는 면이 없어졌어요.(부인-7회상담)”</p> <p>변화하고 싶어 함 “이 상황에서 제 자신도 변화하고 싶어요. 잘 안돼요. 지난 석 달 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 부드러웠다는 것이 과거보다는 아닐 겁니다. (남편-7회상담)” “제가 원래 말을 굉장히 아끼고 어떤 불필요한 말을 안 하고, 남편에 말 한마디 하더라도 굉장히 가려가며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현재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남편-7회상담)”</p>	<p>솔직한 입장을 표현함 “저도 제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 생각을 ‘당신이 들어올 줄 알고, 설마 그 시간까지 바깥에서 기다린다는 생각은 안했다.’라고 했어요.(남편-10회상담)” “그래도 남편이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요. 전에는 끝까지 묵묵부답이었는데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보여요.(부인-13회상담)”</p>

자신의 말투에 대한 후회

“저도 어떤 말을 뱉어 놓고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많고 또 저도 이제 그런 쌍말은 여간해서는 잘 쓰는 성격이 아니에요. 쌍말을 많이 쓰게 계기는 건설업에 있다보니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쌍말 하는 거예요. (남편-14회상담)”

자식들을 의식하기 시작함

“남편이 많이 달라졌죠. 딸이 알까봐. 그 진하고는 달리 많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부인-15회상담)”

자녀의 발언권이 강화됨

“아들이 여기 다녀가고 나서 아빠에게 표현을 좀 강하게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빠하고 좀 다투더라고요. 아빠는 엄마를 용서했으면 끝까지 용서 해야지, 그렇게 자꾸 엄마를 괴롭히느냐고 아빠하고 대화를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거칠게 나오니까 아들이 아빠 멱살을 쥐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아들하고 집으로 들어오고, 남편은 아침에 들어 왔어요. (부인-16회상담)”

트집을 잡지 않으려 함

“그거가 옳으신 말씀이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그 방법까진 솔직한 얘기로 마음에 안 열려져 있어요. 안 열리는데 집사람의 꼬투리를 잡겠다는 생각은 많이 없어졌어요. (남편-17회상담)”

(3) 폭력사용의 감소

사례 A

언어폭력의 감소

“두 분간의 관계는 어떠세요? (치료자-8회상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전에 비하면 남편이 저에게 폭력적인 언어 같은 거를 많이 안 쓰니까요. 그렇지만 대화는 별로 없는 편이예요. (부인-9회상담)”

신체적 폭력이 사라짐

“경찰에 신고하고서부터는 폭력은 안 써요. 언어적인 폭력 정도로 해요. (부인-3회상담)”

“요새는 옛날보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지 않아요. (아들-11회상담)”

“교수님한테 그 때 한번 지적을 받고 가서는 구타를 전혀 안하거든요. (부인-15회상담)”

“지난 3개월 동안 폭행은 없었어요. (부인-16회상담)”

3) 기타

(1) 재결합에 대한 가능성

사례 A

원활한 관계를 위한 노력

“아이들의 문제로 이혼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둘이 원활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남편-1회상담)”

“가능하면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부인-1회상담)”

“저는 와이프가 항상 내가 하는 거에 모든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제 마음을 돌려 먹었으면 상대도 거기에 대한 거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한두 번 자꾸 부딪히고 이려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다가도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그렇죠? 아! 내가 길을 모색해 볼

까. 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웃음) 신뢰감만 주어진다고 그러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남편-20회상담)"

변화를 위한 노력

"거기까지 잘 해 왔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배신감이 들고 희생해 온 내 삶이 그렇게 강요해 온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안타깝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보다 노력 해보고 이 죄가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20년 동안의 결혼생활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도 나지만 저 여자 이렇게 끝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 이웃, 가족이든 간에 나부터 노력을 하고 상대방은 2배, 3배 더 노력을 해야지요. (남편-7회상담)"

"부부관계가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제가 노력을 하죠. (부인-9회상담)"

"아버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자-12회상담) 저도. 그건 알아요. (아들-12회상담)"

긍정적인 희망을 가짐

"전에 비하면 성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또 애들을 보면서 차츰차츰 살아가면서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남편에 대한 시선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죠. (부인-9회상담)"

(2) 외도에 대한 부부문제 의 인정

사례 A

외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책임 인정

"제 경험에 보면 그러면 많은 배우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난 이상이 없어 당신만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이 없고 당신 탓이야. 그런데 실제로 보면 쌍방의 문제라는 거예요. (치료자-4회상담)"

그렇죠. 저는 인정해요. (남편-4회상담)"

(3) 아들의 혼란감 정리와 시각 조정 및 아들의 변화

사례 A

자녀가 안정을 되찾음

"저희 누나가 오고 나선 아들이 많이 부드러워 진거 같아요. 그전에는 집에서 굉장히 우울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나 오고부터는 애가 좀 밝아 졌어요. (부인-15회상담)"

"요즘 애들과 많이 좋아졌죠. (남편-17회상담)"

(4) 엄마에 대한 아들의 신뢰감

사례 A

엄마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

"엄마는 다시는 그런 짓 안할 것 같은데요. (아들-12회상담)"

V. 결론

본 연구는 외도를 한 부인에 대하여 남편이 치료를 의뢰한 A사례와 외도를 한 남편에 대하여 부인이 치료를 의뢰한 B사례를 치료자가 부부 및 가족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하였다. 치료자는 두 사례를 근거이론적인 분석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고, 특히 치료자가 주로 사용하는 가족치료모델인 MRI의 상호작용주의적 모델에서 주로 보는 의사소통문제와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 중점을 두는 자아분화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치료자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축어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자아분화 라는 두 개의 커다란 범주 외에 또 다른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연구자는 A사례에서 부인의 외도를 단순히 부인이 바람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원가족과 분리가 되지 않았고, 이러한 여파로 인하여 자아분화가 되지 않은 가운데 결혼을 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남편은 어려서부터 3명의 어머니를 둔 아버지 밑에서 가부장적으로 성장을 하였고, 가족 내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원가족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남편은 미분화 되었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부인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부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시댁문제로 빈번하게 남편과 다투게 되었다. 즉, 두 부부는 시댁문제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었으며, 남편은 언어적, 신체적 및 정서적인 폭력을 사용하였고, 부인은 이러한 남편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남편에게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부인의 무반응 그리고 나중에는 부인의 폭발적인 반응이 결국에는 부부관계를 악화시켰으며,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해지자 부인은 밖으로 걸들게 되면서 남편의 친구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B사례에서 부인은 남편의 바람기가 불륜관계를 맺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으나, 실제로 부인의 원가족에서 친정아버지가 외도를 하였고, 친정어머니는 딸이 부인과 밀착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친정 아버지의 외도에 관한 충격이 어려서부터 강해서 결혼한 남편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다른 여자들을 멀리 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주입시켰고, 남편은 이러한 부인에 대하여 피곤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모든 일에 참견하려는 부인에 대하여 남편은 화를 내지 못하고 요조숙녀형의 분노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노표현 방식은 어려서부터 원가족에서부터 부모의 부부관계가 안 좋았고, 그런 가운데 남편은 어머니와 분리가 되지 못하였고, 자신의 분명한 의사표현 방식을 배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참고 지내는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A사례에서는 남편의 미분화와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및 그 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악화가 부인의 불륜을 야기한 근본적인 요인이었다고 분석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륜의 영향은 자녀들과 부모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인을 비롯한 자녀들이 우울증과 심리 신체적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사례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미분화 문제와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남편의 불륜관계를 야기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연구자는 치료의 효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상담을 통하여 부부가 변화하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의사소통 하는 방식에서 점차 변화가 되고 있었다. A사례의 경우, 남편의 신체적 폭력은 거의 사라졌으며, 언어적인 폭력 면에서도 남편은 매우 조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과 관련한 남편의 지나친 간섭 및 강요 그리고 과거에 사용하였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부부간에 충돌이 왔다. 특히, 남편은 부인의 불륜에 대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분노가 있었으며, 부인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한 면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두 사람은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지금까지 부부간에 사용했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서로 인식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B사례의 경우, 남편은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 갔으며,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견해를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인은 자신의 표현이 남편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이중구속적인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중구속적인 메시지를 좀 더 솔직한 의사소통 표현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한편, 이러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변화와 시택식구로부터의 분리로 인하여 부인은 우울증 약을 점차로 덜 복용하게 되었고, 우울증도 상당히 감소하였다. 큰딸도 엄마의 눈치를 보는 것이 감소하였고, 자기표현이 증가하였다. 특히 부부가 싸우고 나서 부인의 화해하는 시간이 보통 2일 후 화해하였으나, 그 다음 날 아침에 부인이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부간의 자아분화문제에서 부부가 자신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두 사람 간의 관계와 더 편해졌으며, 이렇게 자신에게로 에너지를 쏟음과 의사소통의 변화로 두 부부간의 변화가 가능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A사례의 경우 20회 상담과 B사례의 경우 14회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외도라는 특수사건이 근본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부부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밖에서 자신을 위한 에너지를 얻어 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 사례는 연구자가 안식년으로 인하여 중도에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종결이 되었다.

참고문헌

김배경, '외로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전화. 기독교신문 (2001년 9월 15일, 10면).

임주현 옮김 (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서울: 문학사상사.

Gottman, J. M. & Silver, N. (1999).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A practical guide from the country's foremost relationship expert. Three Rivers Press: New York.

Subonik, R., & Harris, G. G. (1999). Surviving infidelity, Holbrook, MA: Adams Media.